



지방 진흥과 대학

박수영 | 선문대 부총장

대학을 상아탑으로 부르던 시절에는 대학과 지역 발전은 별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사실 중세와 근세에 걸쳐 전통 구라파 대학은 지역사회와는 독립하여 존재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일종의 치외법권적 단체였다. 이같은 전통을 숭상해서인지 우리나라 대학들도 최근까지 현실에 관여하거나 지역사회와 연대한다는 것에 별반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같은 고전적 아카데미즘을 신봉하면서 대학의 현실 관여를 금기시 하면 그 사람은 아마도 시대착오자로 몰릴 것이다. 사회 변화의 적극적 매체로서 대학의 역할이 날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밀착형 고등교육기능

대학이 지역사회와 유대 관계에 있고 지역 발전에 일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자세가 자리잡기는 19세기 미국의 실용적 학풍과 대학 경영이 준 영향이 크다. 미국에서는 1861년에 이른바 모릴법이 제정되고 주립대학이 설립되면서,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기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이 등장하였다. 주립대학은 기존 동부의 엘리트 대학이 다루지 않는 학문이나 직업군을 개척하고 전국적 인재보다 그 주에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에 우선 목표를 두었다. 연방정부가 이 같은 성격의 지역대학을 각 주가 육성할

수 있도록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여 주었기 때문에 미국의 주립대학을 흔히 토지양여대학(land grant college)이라고도 부른다.

지역에 뿌리를 둔 주립대학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농학, 축산, 수의학, 공학, 건축, 가정학 등 실용적 학문을 우선 발전시켜 미국이 오늘날 이 분야에서 학문과 기술로 세계를 석권하는 지위에 있게 하였다. 관련 기술의 개발과 전파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우선 양성함으로써 산업사회를 만개시키고 번영을 구가하는 기틀을 놓는데 일조하였다. 미국 대학들의 지역주의적 전통은 이후 면면히 이어지면서 독특한 학풍이 조성되고 동시에 지역민의 긍지와 자긍을 이끌어 가꿈 운동경기에서 보듯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결속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이 지역 진흥의 구심점으로, 또 지식정보사회의 전령사의 역할도 맡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연구삼각지대(Research Triangle Park)나 보스턴 외곽을 도는 루트128, 남캘리포니아의 실리콘벨리 등은 대학이 지역 발전의 역동성을 일구어 낸 대표적인 곳들이다.

근래에 와 대학이 지역 쇠신과 창의의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 지식정보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현상은 비단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

“

오늘날 사회 변화의 주류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추세이다.
세계화, 지방화가 진행되면서 국경이 없어지는 대신,
삶의 기초 단위로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변모의 압력 하에 대학도 새로운 역할이 모색되면서
지역중심이나 지역지향적 대학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

으로 목도되고 있다. 독일 루루 지방은 석탄, 제철 등 재래적 중공업이 2차 대전 후 사양길에 접어들자 침체된 지역 경제를 도르트문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주변 첨단 정보연구단지의 구축으로 개편시켰고, 새로운 고용과 소득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학 숫자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는 일본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체로 대학을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는 것도 같은 실례이다. 지역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기존 대학과 차별성을 내세우면서 설립하는 이같은 대학은 독특한 교과 내용과 교육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필자는 미야기 현이 설립한 미야기 현립대학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는데, 건축미를 살린 수준 높은 최신 캠퍼스도 인상적이었지만 지역 학생을 모아 애향 교육을 펼치는 참신한 교육목표와 방식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일생을 살면서 자생적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이른바 지역자립형 인재의 육성에 대학의 운명을 걸고 있었다. 이 대학에는 사업개발학과와 같은 이색 학과가 있는데, 이 학과에서는 지역의 특산물을 세계적 명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파는 연구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지역이 소우주이고 삶의 완결된 장소라는 의식이 없이는 이와 같은 전통적 아카데미즘과 결별한 지역밀착형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이나 인재양성 방식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모두 잘 알다시피 대학이 많다. 대도시와 각 도마다 국립대학이 있는데 이런 국립대학이 분별없이 몇 개씩 있는 도도 있으며, 시·도립대학 등, 공립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그리고 150여 개의 4년제 사립대학이 있다. 이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60여 개를 뺀 나머지 120여 개 대학은 수도권밖에 있어 이른바 지방대학이 수적으로는 압도적으로 많다. 지방대학은 역사나 명성이나 내실이 천차만별이지만 대체로 신설대학이 많고 나름대로 특성화, 개성화, 경쟁적 우위성을 찾으려 부심하고 있으나 다수의 대학들이 서열의식에 놀려 공공연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몰이해와 편견과 같은 악조건에 시달리면서도 지방대학이 책임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지방대학은 많고 지역대학은 없다

필자는 국토나 지역문제를 다루는 학도로서, 엄밀한 입장에서 우리나라에는 지방대학은 있으나 지역대학은 없다고 본다. 대체로 우리나라 대학들은 보편적 진리탐구, 인재양성, 국가나 인류 전체의 우주적 관심사에 경도되어 대학이 소속된 지역과 유리되고 지역지향적 활동이 약하기 때문이다. 연구

“

지식의 창출과 확산은 제도적, 공간적, 문화적인 근접성을 가진 지역 단위에서 가능하다.

또한 지역의 역동성은 지역대학이 근원지가 되며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

이 점에서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고 지역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

를 하되 지역사회와는 상관없는 성격과 스케일의 연구이고, 인재를 양성하되 특정 학문과 직업군에 봉사하는 인재양성이라는 식이다. 이와 같은 대학상은 사회적 여건이 바뀌고 대학이 지는 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뀌어야 하나 그 바뀌는 속도는 매우 느리다.

대학의 변모가 느리면 사회 변화의 주류에 합류하기 어려워진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사회 변화의 주류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추세이다. 세계화, 지방화가 진행되면서 국경이 좁아지는 대신, 삶의 기초 단위로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이 경제와 교역의 단위, 문화의 매개체, 공동사회의 중심점이 되면서 교육의 현장도 바뀌어 지역주의의 발상에서 쇠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모의 압력 하에 대학도 새로운 역할이 모색되면서 지역중심이나 지역지향적 대학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지역중심이나 지역지향적 대학이란 국가와 인류의 후생 증진뿐 아니라 물리적으로 입지한 그 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정 역할과 임무를 다하는 대학, 지역사회와 유대 관계가 깊은 대학이다. 이러한 대학관에 따르면 대학이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생산, 전파하고 사회 역군을 길러야 하는 본연적 임무 속에는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 현실을 살피고 그 발전 잠재력을 일깨우는 역할을 도외시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대학이 시대에 맞고, 성장 가능한 지방대학이다. 이런 지방대학은 한국적 현실 속에서 장에 안고 있으나 지금 지역과 연대하여 힘을 기를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맹렬한 기세로 지방주의가 발흥하고 분권주의적 의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정치, 경제, 사회적 힘과 기회가 서울에 집중되어 서울이 나라의 심장이 되어 군림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 서울이 중심이고 표준이고 우월하고, 지방이 차선이고 열등하고 변경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깨트려지고 있다. 사회 관리의 전 영역에 분권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국토 이용과 삶의 방식뿐 아니라 교육의 전 영역에서도 파행성을 바로 잡는 일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분권적 시민 민주 공동체 의식의 전파와 맞물려 지역사회가 구조적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대학

사회 변화에 지방대학이 부응해야 건강하고 성장하는 길을 걷게 된다. 지방대학이 우선 변해야 지역과 국가가 경쟁성을 지니게 된다고 필자는 믿는다. 지역 산업 구조를 쇠신시키고, 지식·정보 중심의 사회구조로의 이행을 돕고 지역 경쟁성을 제고

하는 발전 분위기를 주도하자면 지방대학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나아가 지방대학이 변신하는 모습을 지역사회에 보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이미 부분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 공업단지나 공장을 유치하는 발상을 버리고 대신 대학 유치에 적극적이다. 지방정부는 대학이 지역 경제발전뿐 아니라 지성과 교양, 문화와 예술의 수용자로서 지역에 혜택을 주고 지역 공지의 생성과 지역 공동사회의 성숙성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선진형 지역 시민 공동사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 공지와 시민성이 대학을 중심으로 뻗어 나갈 때가 되었다. 나아가 세계화, 정보화, 지식중심사회로 이행되는 데 있어 대학이 그 동인이 되면서 사회 변화의 물리적 근거가 되는 지방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세계 경제는 혁신을 강조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고 지식기반 경제의 원천은 지식의 창출과 확산에 있다. 지식의 창출과 확산은 제도적, 공간적, 문화적인 근접성을 가진 지역 단위에서 가능하다. 또한 지역의 역동성은 지역대학이 근원지가 되며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 이 점에서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고 지역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좌우

지방대학이 발전하려면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자기정체성의 확립과, 지역과의 상호 연계와 협조 관계를 설정하는 일이 급하다. 지역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지식 생산과 전파의 매개자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 문화 진흥의 첨병 역할을 맡고, 지역 공지와 위신을 떨치는 연대의식을 공고히 하는 것은 지방대학의 정체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격변하는 시대에 적합한 지역 대학이 되지 않으면 생존이나 경쟁성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대학이 개성은 의외로 약하고 내세우는 발전 전략과 비전이 상투적인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세계적 대학이 되고 전국 몇 위권 대학이 되고 하는 도식적 사고를 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연대의식이 있느냐?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기여하는 자세와 역할과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근본적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대학이 물리적으로는 지방에 있으나 교육의 지향점이 서울로 향해 있는 한 지방대학의 발전이 더딜 뿐 아니라 분권형 민주 시민 공동사회의 성숙이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은 우선 지역과 운명을 같이 하고 지역에 뿌리를 두어야 전국과 세계를 누비는 대학이 될 수 있다. **박수영**

박수영

경희대, 캔자스 주립대학 대학원을 거쳐 뉴욕대에서 도시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희대 교수,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성 고문, 경남개발연구원장, 시도연구원협의회회장,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장 및 미국 일리노이대, 영국 쉐필드대, 독일 도르트문트 대학 객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선문대 교수로 부총장, 아태지역계획주택기구(EAROPH) 총재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도시행정론』, 『지역개발론』, 『지방의 도약』, 『21세기의 지역개발』 등 다수가 있다.